

# 조계종의 모든 것 통계자료로 본다

## #사찰 총 2199개...사실사찰 60%

조계종은 총 2199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사실사찰이 60%(1329개)를 차지하고 있다. 공할 870개 중 전통사찰은 619개, 관할 사찰은 72개, 해외사찰은 24개.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가장 많은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홍사 화엄사가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에 가장 많이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가장 적다.

## #스님 총 12674명...비구니가 더 많아

조계종 스님은 총 1만2674명이다. 이 중 비구 4646명(37%) 비구니 4673명(37%) 등 정식스님은 9319명(74%)으로 비구니가 27명 더 많다. 사미 1814명(14%) 사미니 1398명(11%) 등 예비스님이 3212명(25%)이며, 143명(1%)의 군승(비구 58명 사미 85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제작승이 가장 많은 교구는 직할교구이며 관음사가 가장 적다. 이 중 정식스님은 쌍계사 고운사 대흥사, 예비스님은 관음사가 가장 적다. 또 월정사에는 군승이 한 명도 없다.

연령대별로 보면 45~49세의 스님이 가장 많다. 승려노후복지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스님은 전체 스님의 9%인 1168명이다.

사찰 한 곳당 5.7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5000~6000여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사찰사당 등을 포함한다면 사찰 한 곳당 2~3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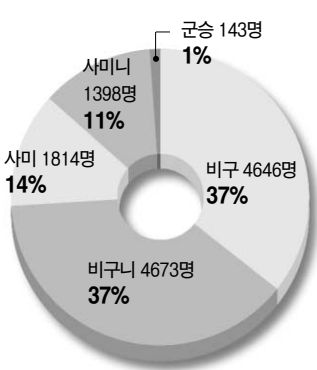
지정문화재 8500점 중 불교문화재는 34%인 2929점이다. 이 중 조계종이 56%(1635점) 타종단이 4%(104점) 등 불교계가 60%(1739점)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공유 29%(865점) 또는 개인 11%(325점).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중 조계종이 소유

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16점(32%), 지방지정문화재는 774점(47%), 문화재자료는 345점(21%)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는 61점(12%), 보물은 421점(82%), 사적은 4점(1%), 사적 및 명승은 6점(1%), 명승은 1점(0%), 천연기념물은 16점(3%), 중요민속자료는 7점(1%)이다. 지방지정문화재 중 시도유형문화재는 720점(93%), 시도민속자료는 13점(2%), 시도기념물은 41점(5%).

교구별로 보면 마곡사와 통도사가 가장

## 조계종 스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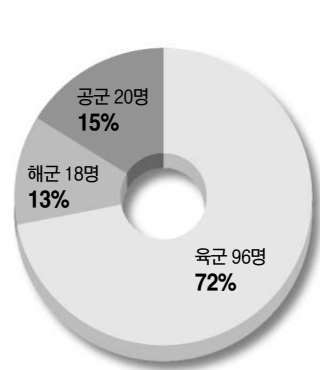


자(91%) 행자 수료율이 훨씬 높았다.

200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강원 19곳,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기초선원 1곳을 비롯한 기본교육기관과 울원 4곳, 학림 2곳, 승가대학원 2곳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 어산작법학교 1곳을 비롯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승려교육을 하고 있다. 3급 승가교사십림이나 본말사 주지 연수 등 재교육을 이수한 스님은 1435명.

#군승 134명 군법당 380개, 경승 808명 경승실 51개

## 육·해·공군 군승 비율



총 134명의 군승 중 육군에 72%인 96명이 있다. 해군은 13%(18명), 공군은 15%(20명)이다. 이 중 대령은 육군 2명, 해군 1명 등 총 3명. 군법당 또한 총 380개 중 육군에 82%(310개)가 있다. 국방부 직할은 6%(22개), 해군은 5%(20개), 공군은 7%(28개), 군승예비자원으로 군승사관후보생 28명, 군승예비요원 22명 등 총 80명이 있다.

경승은 조계종 574명(71%), 타종단 234명(29%) 등 총 80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고, 울산지역이 가장 적다. 경승실의 경우 51개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지만,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는 한 곳도 없다.

#포교사 총 2377명...75%가 팀 활동

포교사는 남자 1418명(60%), 여자 959명(40%) 등 총 237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고, 충북지역이 가장 적다. 연령대별로 보면 50~59세가 가장 많다. 포교활동을 위한 173개의 팀이 구성돼 있으며 1793명(75%)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비구 8명(4%), 비구니 19명(9%), 남자 재가 76명(38%), 여자 재가 98명(49%) 등 총 201명의 국제포교사가 있다.

#파라미타 지부 10개, 분회 285개

파라미타는 10개 지부, 20개 지회, 285개 분회를 두고 있으며 382명의 지도자 및 1만 4089명의 학생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지부조차 없다. 특히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지부 지회 분회 지도자 학생 아무것도 없다. 한편 초등학교 1곳 1명, 중학교 11곳 16명, 고등학교 10곳 18명 등 총 22곳에서 35명의 교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교직자 273명 46곳에서 활동

46곳(1년제 34곳, 2년제 12곳)의 전문교육기관에서 273명(승가 114명, 재가 159명)의 교직자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 수료자는 남자 390명(19%) 여자 1612명(81%) 등 총 2002명.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 전문교육기관이 가장 많으며, 충청남북도도 가장 적다.

#사회복지 시설 94곳 1196명 봉사

94곳의 시설에 1196명의 봉사자가 있다. 이 중 아동은 36곳에 342명의 봉사자가, 청소년은 14곳에 110명의 봉사자가, 노인은 9곳에 173명의 봉사자가, 장애인은 9곳에 150명의 봉사자가, 지역은 15곳에 271명의 봉사자가 있다. 기타 11곳에 150명. 그러나 여성시설은 한 곳도 없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지만,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에 사회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8월 16일 서울 광장동 세라타워 위커피 호텔에서 남북 불교도들이 회담을 나누고 있다.

## 종교통한 민족화해·화합 다짐

### 8·15 민족대축전 성황

'8·15 민족대축전'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펼쳐졌다.

8월 16일 서울 광장동 세라타워 위커피 호텔에서 열린 종교인 모임에서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조계종 사회부장 정민,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이행정 진각종 사회부장, 지현 진각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등은 종교

를 통한 화해와 합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무원 스님과 심상진 위원장은 개성 영통사 낙성식과 관련, 시기와 참가인원, 세부일정, 성지순례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조만간 준비모임을 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같은 날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성공리에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겨레 스스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한층 높여졌으며, 사상과 제도·정견과 신앙을 뛰어 넘어 서로의 신뢰도 한층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남동우 기자

## '군승파견' 화두 풀기 행보 분주

### 조계종 군승교구장 일면스님 태고·진각종 방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공식 출범을 한달 여 앞두고 교구장 일면 스님이 군불교 현안 행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불교 최대현안은 금강대 위탁대 등의 군승과전학교 지정과 이를 통한 이웃종단들의 군포교 참여폭 확대.

천태종과 진각종은 그간 대학의 군승과전학교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복식 등 의례통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일면 스님은 8월 17, 18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 정사를 각각 예방하고 군불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7일 운산 스님을 만난 일면 스님은 "군포교가 열악한 상황인 만큼 힘 합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산 스님은 "조계종이 혼자 할 줄 알았는데 안심이다. 군포교를 위해 종단 역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18일 진각종 총리원을 찾은 일면 스님은 "진각종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조계종이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정 총리원장은 "수많은 교파로 나뉜 개신교도 함께 군포교를 하는데 불교계가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의식통일 등에 대해 조계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군포교 참여에 대한 강한 의욕을 밝혔다.

특히 일면 스님은 군법당에 대한 지원 단일화와 군포교 재정분담 가능성을 다짐했고 회정정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조대 군종특별교구장 진산식은 9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강유신 기자

**고침** 본지 539호(8월17일자) 2면 '동국대 이사 후보' 기사 제목에서 '현문 스님'은 '현문 스님'의 오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소셜 마하물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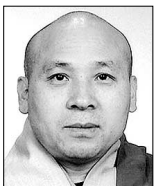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해인사 중의원에 종본스님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교구 보

결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종본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8월 16일 당선됐다.

종본 스님은 1976년 사미계, 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경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배지선 기자

## 조계종, 예성애드컴 등 고발

영담스님 등 "관련자 책임"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담합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시공사인 예성애드컴과 원가 계산을 한 현대

산업정보연구원을 행사 고발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그러나 영담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4명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역 및 일반적 중무원, 업체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8월 이내 취할 것과 총무원장 법장, 중앙종회의장,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기획실장 등은 참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 연화사 호계불교대학개원법회

### 개원법회 일시 | 2005년 9월 3일 오전 10시

## 모시는 말씀

제방의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개원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 두루 참석하시어 선근인연을 지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륜 합장

## 증명 경해 법인 큰스님(각원사 주지)

- 1부 : 관세음보살님, 신중탱화점안식
- 점안식 - 동주 원명 큰스님(조계종 영산범음회 어장)
- 대원 큰스님(각원사 불교대학장) 외 1명

## 2부 : 개원법회

- 개원법문 - 해인 큰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 축원 - 해남 큰스님(통도사 울원장 전계사)

## 연화사 법회안내

- 초하루 신중기도(매월음력초하루 오전 10시30분)
- 지장재일(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 관음재일(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 금요참선법회(매주 금요일 오후 9시 ~ 11시)
- 일요가족법회(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특별 철야정진기도(매주 세째주 토요일 오후 9시)

## 개원봉축등을 접수합니다

- 3만원
- 봉축등은 내년 초파일까지 법당에 달아드립니다

## 호계불교대학 강사진

교과목	담당교수	비고
불교기초교리	차차석 교수	동국대교수
원시불교	정인 큰스님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禪(선)사상	성본 큰스님	동국대 교수
불교와 사회복지	최영신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 교수
반야심경	덕륜스님	연화사 주지
女性和 佛敎	황수경 교수	동국대 교수
불교와 계율	해남 큰스님	통도사 전계사 울원장
좌선실수	지록 큰스님	송광사 스님

원서접수 | 10월 1일부터 120명 선착순 접수

기초교리반 | 4개월 과정 주 2회 강의

입학상담문의 | 전화 (052)293-5550 / 팩스 (052)293-5540